낯선 것들과 함께 살아가기

낯선 환경

종래 역사가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것은 새 발의 피였다. 그 산업혁명이 이제는 제4차까지 전개되었다고 하니 오죽하겠는가? 율곡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농업이라는 일차산업 위주의 세계였다.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미래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본서가 취한 입장은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자는 일이 아니라, 마치 과학 법칙처럼 인간의 삶에 적용되는 보편 원리를 찾아 적용하는 일이다. '낯선 것'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선생이 살았던 시대에도 낯선 것이 없지는 않았다. 아니 자주 있었다. 그것을 변고變故나 재이災異 또는 이변異變이라고 부르던 것인데, 『조선왕조실록』과 선생의 상소문 등이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었다.

이 이변의 종류를 보면 홍수나 가뭄과 태풍과 질병은 기본이고, 일식과 월식, 혜성의 출현, 태양을 가리는 흰 무지개, 화성火星의 특정 별자리로 이동, 이상하게 생긴 나무, 기형적 동물, 때에 맞지 않는 천둥과 번개, 황사에 뒤이은 흙비 등 다양한데 대부분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다.

당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랬다고만 단정하면 안 된다. 사실 재이나 이변을 강조하고 침소봉대하는 까닭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 바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전제정치 아래에서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데에 그것을 활용하는 일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철학적 배경이 있다. 곧 이변이 생기는 까닭은 왕이 정치를 잘못하여 원망하는 백성의 기氣가 하늘에 쌓여 이변이 생긴다는 한나라 때의 철학자 동중서董仲舒의 이론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런 전통에서 이변이 생기면 임금은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감선減膳을 하고, 왕이 근신한다는 의미로 궁을 떠나 행궁에 머무는 피전避殿을 행하였다. 임금이라고 해서 신하들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과 신하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러라도 정치적 득실을 고려해 그렇게 했던 일이다.

선생은 이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하면서 상소를 올렸다. "피전避殿하고 감선減膳하는 것은 재이를 두려워하는 겉치레이고 말단이나, 덕을 쌓고 정치를 고쳐 바르게 하는 일이야말로 재이를 대처하는 실질이며 근본입니다." 여기서 선생이 '겉치레'라고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도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 해서 재난이 생겨 임금이 근심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였던 일은 임금의 대단한 덕이 아니라, 정치적 제스처 쉽게 말해 백성을 사랑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 이걸 두고 오래전 모 방송에서 유명 강사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진지하게 왕의 덕이라고 칭찬한 걸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의 논리를 따른다면 조선의 왕들은 거의 다 이랬으니 모두 덕이 있는 군주이다. 물론 기록하는 사관은 그 점을 왕의 지극한 덕과 애민정신의 발로라고 했겠지만. 이런 기록은 사실대로 믿을 게 아니라, 행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진실이 등장하는 법이다.

하지만 필자가 말하려는 낯선 자연환경은 과거 조선 시대의 이변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과거에도 지진과 홍수와 태풍은 있었고, 고대 문헌에도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구의 평균온도와 해수면의 온도, 대규모 산불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물론 그것이 산업화의 영향인지 지구 자체의 주기적 변화에서 생기는 것인지 논란은 있지만, 대다수는 전자에 동의한다.

그러니 과거처럼 24절기에 기후가 맞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평할 이유도 없고,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짧아져도 낯설게 여길 필요도 없다.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녹아 저지대의 도시나 농경지가 사라져도 놀랄 일도 아니다.

그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머지않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화석연료 차량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대

신 전기나 수소를 이용하는 탈것이 보편화될 것이다. 발전소도 예외는 아니라서 화력 발전소는 폐기되고 원전도 줄어들 것이다. 대신 태양열과 조력과 풍력 등을 이용한 발전 모습을 여기저기서 일상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지구환경의 변화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 환경도 변하고 있어서 낯설기는 매한가지이다. 이미 가족제도는 옛날의 그것이 아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했지만, 이제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어 전통적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두 부모, 한 부모 가정은 물론, 동성同性으로 이루어진 가정, 1인 가정, 그 가운데도 비혼 가정, 미혼 가정, 이혼으로 다시 돌아온 가정 등 온갖 형태의 가정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일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 성 정체성은 어떠한가? 기존의 생물적 남성과 여성의 관념으로 바라보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으로 전환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 젠더 관념은 허물어져 일의 역할이나 복장에도 남녀의 구별이 사라질 것이다. '남자가 왜 이래?' '여자가 왜 이래?'라고 하는 말 따위가 미래에는 낯선 말, 금기어가 될 것이다.

직장도 낯설긴 마찬가지다. 전통적 산업방식이 확 바뀌어 일자리나 업무 내용이 이전과 다를 것이다. 가정은 물론 회사에서도 대부분 로봇이 일 처리할 것이다. 과거 경험에 젖은 나이 든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기도 버거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은 낯선 것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하여

낯선 일에 익숙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일본에는 낯선 사람이나 일을 만나는 게 두렵거나 귀찮아 집안에 처박혀 사는 심지어 자기 방에서조차 안 나오는 이른바 '히키코모리'가 현재 기준으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가정교육에서 자녀가 낯선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교육하려면, 대인관계를 활발하게 하여 사회성을 키워주고, 낯선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모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낯선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일도 좋겠다. 그리하여 낯선 점이 두렵거나 껄끄럽지 않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잘만하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희망하게 해야 한다.

낯선 기술

필자 일생의 경험을 돌아보아도 일상생활에 사용된 기술변화가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쓰고 있는 물건 가운데도 70~80년대에 사용하는 것과 비록 겉보기는 유사해도 기술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아날로그식이라면 지금은 디지털식이다. 일례로 당시는 은행에서 주판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휴대하기 간편한 전자식 계산기가 등장하면서 그것을 쓰기도 했지만, 주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당시 대다수 한국 은행원은 주산의 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주판이나 전자식 계산기는 사라졌다. 사실

컴퓨터도 계산기다. 그 계산의 원리를 무궁하게 확대하여 인공지능까지 등장했다.

그때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취업한 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 회사의 간부로 남아 있는 분이 있다. 필자의 지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을 거론하는 까닭은 매우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업무용 도구의 기술이 이렇게 변천했는데도, 지금 그분은 아직도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다. 하여튼 대단한 능력이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90년대인가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의 교육계의 화두는 영어와 컴퓨터 교육이었다. 그래서 교사들을 영어와 컴퓨터 교육 연수에 의무적으로 내몰았다. 그게 스트레스라 많은 교사가 명예퇴직을 희망했다. 물론 거기에는 정년 단축도 한몫했지만. 그런데 당시 컴퓨터 연수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베이직Basic 프로그램의 기초, 워드프로세서, 매뉴얼을 보고 인터넷 사이트 이용 등 이런 거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당시는 진지하게 연수에 참여했다.

그 덕분인지 그런 교육의 영향인지,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컴퓨터를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굳이 매뉴얼도 필요 없다. 화면을 보면 직관적으로 무얼 누르거나 클릭해야 할지 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소형컴퓨터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며 잘도 사용한다. 낯선 기계·기술에 적용한 일이다.

그런데 그 사용에 아직도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다.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있다. 한 번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데 노부부

가 다투며 지나간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내 되는 분이 '카톡' 사용법을 남편에게 알려주었는데, 다시 반복해 묻는다고 짜증 내는 소리였다. 얼마 전 주민 센터 앞을 지나가는 데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없어 그랬다. 그들에겐 아직도 인터넷 사용은 낯선 기술이었다.

미래에는 낯선 새로운 기술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등장할 것 같다. 이미 현실화·상용화가 눈앞에 닥친 기술에는 자율 주행차, 드론 택시,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 데이터, 로봇, 스마트 팩토리, 나노 기술, 신경 과학, 원격진료, 유전자 조작과 변형 재조합, 트랜스 휴먼 등 매우 많다.

사실 예를 든 기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다. 이미 상용화가 되었거나 조만간 될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어떤 신기술이 등장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그 사회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윤리적·법률적 검토와 합의 및 그에 상응하는 제도가 뒤따라야 하고, 또 그 기술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생활에 유용하고 필요하다면 신기술의 도래는 막을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이 돈벌이가 된다면 자본주의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미래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 20세기 인간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에 적응하듯이. 요즘은 5세 이하의 유아들도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안다. 대단한 적응이다.

이 문제에 대해 기성 어른들보다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기술변

화에 훨씬 적응이 빠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부모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 미래에 기술에도 꼭 그럴 것이라는 법은 없다. 지금의 노인 세대가 신기술을 낯설게 여기듯이 그들도 나이 들면 신기술이 부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낯선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도전하거나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낯선 사람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 그래서 씨족 단위의 마을이 많았고, 마을에는 인정이 넘쳐흘렀다. 어쩌다가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이방인 취급하였고, 당사자는 낯설어하였다. 그래서 선생은 『성학집요』에서 『중용』의 "먼 데서 온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인용하였는데, 주희의 주석에서 그것을 '손님과 나그네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낯설어하는 손님에 대한 배려였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진행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몰렸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량의 아파트를 지었다. 아파트 삶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웃이 없다. 또 그것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들여 임대하므로 그에 따라 이사도 자주 다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해서 위층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이러니 동네 나가도 모두 낯선 사람

뿐이다. 알고 인사하는 사람은 극소수뿐이다. 아는 사람은 직장 동료, 친인척, 학교 동창생 등인데 대개 흩어져 살아서 이웃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러니 사실상 공동체가 무너지고 없다. 그 낯선 삶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거나 찾는다. 동아리 모임, 교회나 성당과 사찰 등을 찾는 일이 그런 이유이다. 이 낯선 것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미래는 이 낯선 일상,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상이 될 것이다.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나 개인을 만날 수밖에 없다. 국내인만이 아니라 국경과 인종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 일상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낯설 것이다. 환경도 낯설고 기술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다.

심지어 가족도 낯설다. 왜냐하면 세대에 따라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 두고 '내 아들이 아니다.'라거나 '재가 내 딸 맞아?'라고 푸념한다. 미래사회는 이런 간격이 더 벌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가족만 그런 건가? 절대로 아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의 자기가 예전의 자기가 아닌 것으로 느낄 때가 있다. 지금도 그런데 미래는 더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므로 사람의 가치나 문화도 그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옛날의 문화나 가치를 따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

한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꼰대'라 부르지 않는가? 가치나 문화가 변한 사람은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근거도 있다. 인간을 포함은 만물은 자성自性이 없다는 불교의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논리에도 보이지만, 개인의 가치와 문화는 연기緣起의 소생, 곧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해서 사람이 낯설게 변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변한 모습이 보편타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려면, 자신의 주장이나 가치 문화만 고집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굳이 그렇게 하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설득을 못 하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미래에는 이런 낯선 일이 일상화될 것이다.

가정교육에서 이 낯선 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해법은 상호존중이다. 각자의 가치와 문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한 가족 또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자칫 부모 관점에서 자식이 따르는 문화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버릴 것을 강요한다면,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설령 좋지 못한 문화라도 스스로 깨달아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